

프로 데뷔전 리디아고 꿈향한 티샷



LPGA 투어 타이틀홀더스 … “대회 툴 15가 목표, 큰 선수 될게요”

“프로답게 더 노력해서 더 큰 선수 가 되겠습니다.”

한달 전 프로 골퍼로 전향한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6·한국 명 고보경)가 꿈에 그리던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무대에 섰다.

2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골프장에서 시즌 최종전으로 치러지는 CME그룹 타이틀홀더스를 겟없는 ‘천재소녀’의 데뷔전이다.

데뷔 개막을 하루 앞둔 21일, 16세 소녀의 표정과 행동에선 긴장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와 곧잘 비교되는 타이거 우즈(38·미국)와 미셸 위(24·미국)가 프로 데뷔전에서 쓴맛을 봤지만 “그린 것은 신경 안 쓴다”고 했다.

우즈는 1996년 9월 밀워키 오픈에서 공동 60위를 기록했고, 미셸 위는 2005년 10월 삼성 월드챔피언십에서 4위로 대회를 마쳤지만 규정 위반으로 실격 처리됐다. 미국 여자골프의 꿈나무라는 렉시 톨프슨(18)은 2010년 6월 슬라이트클래스에서 첫 탈락 했다.

선배 선동들이 데뷔무대에서 출출이 고배를 마셨지만 리디아 고는 “내 게임을 하겠다. 한 샷 한 샷 침착하게

하려고 한다”며 “톱 15(상위 15위)에 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자신의 우상인 미셸 위와 1라운드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심정을 묻자 “미셸 언니와는 이전에 몇 번 쳤다. 재미있을 것 같다”며 웃어넘겼다.

데뷔전 성적만큼이나 관심은 끄는 후원업체에 대해선 말은 아꼈다. 미셸 위는 2005년 프로로 전향할 때 나이키와 스폰서십을 맺으면서 계약금으로만 1000만달러를 손에 쥐었다.

LPGA 우승 2회, 준우승 1회 등 아

마주어 성적으로 따진다면 미셸 위보다 많은 돈을 받아야 하지만 국적 등 기량 외에 다른 요소 때문에 ‘잭팟’이 터질 것으로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적 문제와 관련해 리디아 고는 “내겐 뉴질랜드에서의 기억이 한국보다 훨씬 더 많다”며 “내 생각엔 뉴질랜드로 계속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997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6세 때 부모를 따라 뉴질랜드로 이민해 ‘국민글로벌’로 성장했다.

다음은 리디아 고와의 일문일답.

-프로 데뷔전을 치르는데 심리적 압박 같은 것은 없나.

▲ 내일(1라운드) 가면 긴장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까지는 괜찮다.

-리라운드에서 미셸 위와 함께 플레이를 하게 됐다.

▲미셸 언니와는 이전에 몇 번 같이 쳤다. 같은 조인 제시카 코다(미국)와는 연습리우드 때 몇 번 같이 친적이 있다. 재미있을 것 같다.

-이번 데뷔전에 뉴질랜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는 것 같다.

▲대단히 많이 응원해준다. 나 말고도 동갑인 가수 로드(본명 엘라 오코너)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해 기쁨이 더한 것 같다.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선정한 ‘올해의 영향력 있는 10대 16명’에 들었는데.

▲나와 같이 선정된 다른 사람 프로필을 보니 다들 큰일을 했더라. 매우 영광스럽다.

-국적은 뉴질랜드이지만 피는 한 국인인데.

▲사람들이 날 보면 아시안, 한국 사람으로 보지 뉴질랜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성격은 확실히 한국인 스타일이 아니고 뉴질랜드인의 그것과 섞여 있다. 한국, 뉴질랜드 다 좋지만 이제 (이민한 지) 10년이 됐다. 내겐 뉴질랜드에서의 기억이 한 국보다 훨씬 더 많다.

/연합뉴스

스티들 학교 찾아가는 ‘1일 스포츠 클럽’ 인기

광주FC 김은선·김수범

영천중 학생들과 축구

광주시체육회가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 일환으로 운영하는 ‘스포츠 스타와 함께 찾아가는 일일 스포츠클럽’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 체육회는 최근 광산구 영천 중 강당에서 광주FC 남기일 감독과 김은선, 김수범을 초청, 1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일 스포츠 클럽을 진행했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해 학생들이 흥미를 잊지 않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대구 산악인 240명 무등산 공동 등반 나선다

12월 8일 ‘달빛동맹’ 활성화

광주와 대구 산악인들이 ‘달빛동맹’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무등산 간(제철 유적지)~서석대~입석대~장불제~용주 삼거리~중며리재~증심사(12km) ▲무등산 산장~옛길 2구간(제철 유적지)~서석대~입석대~장불제~용주 삼거리~증며리재~증심사(10km) 등 2개 코스로 나눠 진행된다.

김제정 전무이사는 “2011, 2012년은 전국 산악인을 대상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기원 등반행사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대구 산악인들이 찾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양 도시 산악인들은 무등산 산장입구에서 신현이 회장의 환영 인사와 등반 선언식을 시작으로 서석대까지 등반에 나섰다. 하산후에는 광주·대구 산악인 교류를 위한 만찬도 마련된다.

최숙 교장은 “앞으로도 시체육회와 시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조로 더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스타 선수들이 클럽 학생들을 지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해 학생들이 흥미를 잊지 않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무등산 산행은 ▲무등산 산장~동

화사터~중봉~서석대~입석대~장불제~용주 삼거리~증며리재~증심사(12km) ▲무등산 산장~옛길 2구간(제철 유적지)~서석대~입석대~장불제~용주 삼거리~증며리재~증심사(10km) 등 2개 코스로 나눠 진행된다.

김제정 전무이사는 “2011, 2012년은 전국 산악인을 대상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기원 등반행사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대구 산악인들이 찾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달빛동맹’은 광주와 대구 양 도시가 지난 2009년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의 머리를 자를 붙여 만든 사업으로, 학계와 민간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주제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확신한다”

바흐 IOC 위원장 방한

 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피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스포츠의 역할은 항상 대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독일 역시 분단국이었던 때문에 이것이 한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대회를 이어가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이다”고 말했다.

바흐 위원장은 2011년 6월 IOC 서울 총회, 2006년 4월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ANOC) 서울 총회, 2011년 8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세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산행 안내

해외 및 섬은 개재가 불가합니다.(국지민 가능)

11월 23일(토)

▲광주백토오수인회 11월 23일(토) 부산 금정구 금정산, 진원동한마음마트 05:30, 백운동우체국 05:33, 봉래백화점 06:10, 서방사거리 05:45, 각화동 풍물마트(0555, 학순 06:30) *다음카페 광주백토오수인회 010 5612 5191, 010 8438 6978

▲신길백리산악회 11월 23일(토) 용평 미륵산, 07:00 암주데파트주차장, 07:20 문예회관 후문, 07:30 비엔날레주차장 07:10 대인광장, 07:20 예술후문, 07:35 각화동그린장례장 맞은편

▲광주대정산악회 11월 23일(토) 문재신 미녀봉 경남 거창, 07:30 암주제육관 주차장 출발, 07:50 무등 경기장 후문, 08:00 문예회관 후문 *다음카페 광주 대정산악회 010 3640 0366, 016 247 5748

▲광주토요산악회 11월 23일(토) 거창 마녀봉 두부산 오보산, 07:00 암주제육관, 광주역, 비엔날레주차장 경기장 010 2404 6922

▲광주대정산악회 11월 23일(토) 문재신 미녀봉 경남 거창, 07:30 암주제육관 출발, 07:50 무등 경기장 후문, 08:00 문예회관 후문 *다음카페 광주 대정산악회 010 3608 4267, 010 3641 6153

11월 24일(일)

▲광주수령산악회 11월 24일(일) 진원 선각산 대성전, 07:00 암주제육관, 07:20 문예회관, 07:30 광주 대성전 010 3608 4267, 010 3641 6153

▲광주행복인회 11월 24일(일) 광주 대성전, 07:00 암주제육관, 07:20 문예회관, 07:30 광주 대성전 010 4448 4257, 011 635 0510

▲한울산악회 11월 24일(일) 화남 두륜산, 남광주동 07:30, 문예회관 후문 08:00 비엔날레주차장 07:30, 남광주 07:45, 각화동 풍물마트(0555, 학순 06:30) *다음카페 한울산악회 010 3625 5234, 010 4328 7700

▲광주일포스신인회 11월 24일(일) 청원 천마산 대

금산, 07:40 대인광장, 08:00 대인광장, 08:10 각화동 풍물파크 *다음카페 광주일포스신인회 010 3602 4216

▲광주수령산악회 11월 24일(일) 진원 선각산 대성전, 07:00 암주제육관, 07:20 문예회관, 07:30 광주 대성전 010 3608 4267, 010 3641 6153

▲광주수령산악회 11월 24일(일) 진원 선각산 대성전, 07:00 암주제육관, 07:20 문예회관, 07:30 광주 대성전 010 3608 4267, 010 3641 6153

11월 25일(월)

▲광주수령산악회 11월 25일(월) 경남 고성 황도봉, 07:00 암주제육관, 07:20 문예회관, 07:30 광주 대성전 010 3608 4267, 010 3641 6153

▲광주수령산악회 11월 25일(월) 경남 고성 황도봉, 07:00 암주제육관, 07:20 문예회관, 07:30 광주 대성전 010 3608 4267, 010 3641 6153

11월 26일(화)

▲광주수령산악회 11월 26일(화) 경남 고성 황도봉, 07:00 암주제육관, 07:20 문예회관, 07:30 광주 대성전 010 3608 4267, 010 3641 6153

11월 27일(수)

▲광주수령산악회 11월 27일(수) 경남 해남 흑석산, 07:30 백운동 풍물마트(0555, 학순 06:30) *다음카페 광주수령산악회 010 3619 0280

▲광주수령산악회 11월 27일(수) 경남 해남 흑석산, 07:30 백운동 풍물마트(0555, 학순 06:30) *다음카페 광주수령산악회 010 3619 0280

11월 28일(목)

▲블랙아크 명산탐방 11월 28일(목) 강원 태백산, 07:00 암주제육관, 07:20 문예회관, 07:30 광주 대성전 010 3608 4267, 010 3641 6153

11월 29일(금)

▲광주미래로토양인회 11월 29일(금) 영암 월출산, 07:00 암주제육관, 07:20 문예회관, 07:30 광주 대성전 010 4063 7681

▲오산회 11월 29일(금) 양주 도락산 불곡산, 07:30 문예회관, 07:45 문예회관, 07:50 문예회관, 07:55 문예회관, 08:00 문예회관, 08:15 문예회관, 08:30 문예회관, 08:45 문예회관, 09:00 문예회관, 09:15 문예회관, 09:30 문예회관, 09:45 문예회관, 10:00 문예회관, 10:15 문예회관, 10:30 문예회관, 10:45 문예회관, 10:55 문예회관, 11:10 문예회관, 11:25 문예회관, 11:40 문예회관, 11:55 문예회관, 12:10 문예회관, 12:25 문예회관, 12:40 문예회관, 12:55 문예회관, 13:10 문예회관, 13:25 문예회관, 13:40 문예회관, 13:55 문예회관, 14:10 문예회관, 14:25 문예회관, 14:40 문예회관, 14:55 문예회관, 15:10 문예회관, 15:25 문예회관, 15:40 문예회관, 15:55 문예회관, 16:10 문예회관, 16:25 문예회관, 16:40 문예회관, 16:55 문예회관, 17:1